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최현진
중앙의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2022년 3월 개원하여 약 700명상 규모로 암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소화기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척추센터, 관절센터로 이루어진 6개의 중증전문클러스터와 3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X 광명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우수하여, 광명시뿐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점 대학병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고객중심 스마트 병원이라는 비전 하에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중환자실 전체를 모두 1인실로 운영하며 환자중심 진료를 시행하고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구축하여 SS&C 블루프리즘 2023 Customer Excellence Awards'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Best Newcomer'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진료에서 빠른 양적,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원 50일만에 일 외래환자 1천명을 돌파, 14개월 만인 2023년 5월에는 2천명을 기록하며 빠르게 지역의료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진료의 전문성과 질적성장면에서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53%,2023년 7월에는 수술건수 10,000례를 달성하



는 등 설립 본연의 목적인 중증전문 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광명시 소하동에 소하검진센터가 개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환자들을 중앙대 광명병원 외래로 연계하여 지역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병·의원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2,562개의 의료기관과 의료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 1년만에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기초연구와 임상 전 분야에서 연구능력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임상시험센터(Smart Trial Center)는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인체에 적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에 지정되는 등 의료산업 모든 분야의 임상시험 수행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최초로 노인전문수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포괄적인 수술 전 평가 및 재활, 수술 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 환자들의 수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산부인과에는 부인중양분과 3명, 산과 3명 등 총 6명의 교수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담간호사가 교수진과 더불어 외래와 병동, 수술장에서 근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변 산부인과 병원들과의 연계도 활발히 하여, 지역의 고위험 산모와 다양한 부인과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내년부터 인턴수련이 시작되며, 내후년에는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인 중양 전문의 수련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아 2024년 부터는 전임의 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병원 산부인과의 강점은 젊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병원 전반적으로 젊은 의료진들이 많다 보니, 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에 따라 협조가 원활한 것이 저희 병원의 강점입니다. 암환자, 고위험 산모를 위한 다학제 진료, 협진 수술에서 소아과, 외과, 비뇨기과, 내과 마취과 등 타과의 협조가 원활합니다. 중환자실 입실 시에는 중환자의학에서 ICU care를 맡아 담당해 주고 있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개원 1년 6개월을 막 지난 신생 병원으로,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중심, 스마트 병원을 목표로 경기 서남부의 거점병원으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에 기여하며 연구중심, 필수, 중증, 응급의료의 중심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